

향토성과 문학성의 증시

-일제시기 대만, 한국의 반좌익적 민족주의 문학관

曾 天 富*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張深切의 道德文學論 |
| 2. 사상적 배경과 문단상황 | 4. 한국의 민족문학론 |
| 3. 葉榮鐘과 張深切의 민족문학론 | 5. 맺는말 |
| 1) 葉榮鐘의 第三文學論 | |

1. 머리말

대만은 근대로의 이행기에 약 50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자주적인 사회변혁이 좌절되고 정치적으로 주권의 상실과 경제적으로 종속자본주의의 길을 강제 당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 역시 같은 시기 형식을 달리하기는 하였으나¹⁾ 동일한 식민지 경험을 거쳤다. 이 시기 양국의 문학은 계몽주의, 좌익문학, 현실주의 문학, 농민문학, 황민문학의 등장 등 비슷

* 중화민국 國立政治大學 東方語文學系 副教授

1) 한국의 경우 비록 제국주의의 힘에 강제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양도형식을 갖추었던 데 비해 대만의 식민지로의 전락은 대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淸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할양 당했다.

한 계적을 그리면서 전개되었다. 때문에 같은 역사적 조건 아래 놓여 있던 양국문학의 비교고찰을 통해 일제시기 자국문학의 이해와 나아가 근대 동아시아 문학의 면모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본문은 그중 일제시기 양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시에 문학의 현실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나온 좌익문학에 맞서 일정한 견제역할을 담당했던 문학론 중 민족주의 문학관에 한하여 그 좌익문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관련성과 득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좌익문학의 대척적 지점에서 있는 민족문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만의 경우 1930년대에 나온 葉榮鐘의 「第三文學論」과 張深切의 「道德文學論」이고, 한국의 경우는 1920년대 최남선의 「國民文學論」과 양주동, 염상섭 등의 「折衷主義文學論」이다.²⁾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이들 문학관에 대한 연구업적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선행연구를³⁾ 참고하도록 하고, 본문에서는 주로 대만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좌익문학을 반대하는 민족문학론의 논점을 규명하고 이를 한국문학의 상황과 비교하여 동일한 배경의 양국문학이 전개한 민족문학론의 주장과 차이를 밝혀보기로 한다.

2. 사상적 배경과 문단상황

약 반세기에 걸쳐 일제가 가하는 정치적 불평등과 경제적 착취의 식민주의,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내세우는 강제적 근대자본주의의 진전에 직면한 양국은 공히 자주독립의 민족해방과 근대성애의 지향, 즉 반제반봉건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지게 되었다. 이른바 계몽과 항일이 당시 양국의

2) 한국의 경우 1930년대 초반의 순문학운동도 프로문학에 대해 안타테제로 등장하였지만 여기서는 민족주의 문학론에 논의를 한정시키기로 한다.

3) 본문에서 참고한 선행연구는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6),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86), 이선영 등의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세계, 1989), 이주형의 『한국근대소설연구』(창작과 비평사, 1995), 임규찬의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태학사, 1998), 김재용 등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8), 권영민 편저의 『염상섭문학연구』(민음사, 1987), 문학과 사상연구회의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깊은 샘, 1998) 등이다.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드러나는 것은 시대 정신사적 측면에서 바로 양국이 동일한 처지에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학면에서도 반제반봉건의 내용과 그 문학적 접근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며 1920년대 좌익문학의 대두로 이민족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대다수 민중이 처한 부정적 현실의 변혁을 우선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당시 문학계의 현실대응은 계몽과 민족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문학단체와 그 활동은 좌우익사상의 경향에 따라 각기 다른 계보를 그리고 있었다. 즉 당시 현실참여를 중시하고 민족의 운명을 모색하던 문학계의 동향은 이들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제초기부터 좌익문학이 쇠퇴되어가던 1937년까지의 자국내 민족운동과 그 사상적 배경을 좌익문학과와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개설하여 본문의 주제인 민족주의 문학관과 좌익문학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전제로 삼기로 한다.

1894년 마관조약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꾸준히 전개된 대만의 항일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1895년 「臺灣民主國」의 성립⁴⁾에서 1915년까지 지속된 대만보위전, 즉 항일유혈무장투쟁이고,⁵⁾ 다른 하나는 직접투쟁이 실패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노선으로 출발한 사회, 정치운동이었다. 그중 대만민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조직은 1921년 결성된 「文化協會」로 그 구성원은 토착자산계급과 소부르조아, 동경유학생 등 당시 각성한 지식인의 결집이었고 이들은 비투쟁의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채택하였다. 문화협회는 문화계몽을 내세우는 비정치단체였으나 대만의회설치청원운동을 지지하고 그 핵심간부가 청원운동을 이끄는 등 정치운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강연회 등 문화계몽활동의 내용에서 자연히 이민족통치에 대한 민족자각과 정치압박, 경제수탈, 사회同化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서

4) 臺灣民主國은 대만에 있던 淸의 관원들과 본토 土紳계층이 연합하여 淸의 승인 하에 건립한 것으로 義軍을 조직하여 일본의 침입에 대항하였으나 日軍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실패하였다.

5) 義民에 의한 유혈무장투쟁은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지속되었는데 많은 희생을 내었다.

출발하였고, 의회설치청원운동이 가속된 일제의 수탈이 기층 민중에 가한 피해를 덜어줄 수는 없었으며 토착자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내부 분열이 일게 되었다. 1927년의 문협외의 좌경화는 바로 변화하는 현실이 더 이상 토착자산계급 위주의 운동에 머물 수 없고, 억압받는 기층민중의 열망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변화를 말해주며, 또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좌우노선의 정식적인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좌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문협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구문협의 강령을 취소하고 농민, 노동자, 소상인, 소자산계급을 위한 운동방향을 채택하여 동일노선의 대만농민조합과 연대,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문협분열시 사회주의파의 대립면에 섰던 민족자결파들은 「臺灣自治會」, 「臺灣民黨」을 거쳐 「臺灣民衆黨」을 결성하고 민족해방보다는 일제통치라는 원칙 아래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⁶⁾ 이렇듯 대만의 항일민족운동은 문협의 성립과 분열로 대표되는 좌우익 양대진영의 이합집산으로 그 계보가 그려지며 내부의 각 층들에도 불구하고 반세기에 걸친 일제통치하에서 문화계몽과 의식의 근대화, 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국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족해방운동은 3·1운동을 분수령으로 그 이전의 복벽운동, 항일의병운동과 이후의 민족운동으로 나뉜다.⁷⁾ 또 1920년대의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우파가 타협적 노선인 민족개량주의로 나간 것과 민족주의 좌파가 새로 유입된 사회주의운동과 연계를 가지면서 일제와의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대분되는 좌우익의 활동은 신간회 결성으로 일단 통일전선을 이루지만 30년대에 들어서면 그 해소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분열과 양극화 현상, 재통합 등 일련의 분열통합과정을 거치게 된다. 1920년대 초기의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층은 대만의 문협이 그랬듯이 지주, 자본가 계층과 지식인층을 포괄하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배세력의 비호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점차 식민체제를 승인하는 전제에서

6) 여기에 대해서는 史明, 『臺灣人四百年史』(蓬島文化公司, 1980)와 林柏維, 『臺灣文化協會滄桑』(台原出版社, 1993)을 참고.

7)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pp.46-48

민족개조론, 자치운동, 불산장려운동 등 개량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실제생활에서 민족모순을 체험하던 기층 민중과 일부 지식인층은 비타협적 투쟁자세를 견지하며 일제 통치계급과 맞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⁸⁾

좌우익의 사상적 흐름을 중심으로 양국의 민족운동을 투시하면, 비록 분열 통합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대만은 1920~27년까지 통일전선시기이고 이후 분열을 거듭해 가다 일제의 탄압으로 모든 민족운동이 와해되는 데 비해, 한국은 2,30년대를 거치며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 갔다. 그러나 양국에서 공회 계몽과 항일정신의 공존, 사회주의 유입으로 인한 민족운동의 성격변화, 계급해방과 민족해방문제의 쟁점화를 드러냈다.

이민족통치의 시대상황, 특히 수탈을 기본 특성으로 한 식민정책과 이에 대처한 민족운동의 변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양국의 문학계 상황 역시 사상경향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 대만의 경우 신문학운동이 태동된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조가 유입되면서 근대문학의 초기부터 무산대중인 민중을 문학의 대상으로 구체화시키는 좌익문학이 형성되었다.⁹⁾ 특히 1931년 좌익정치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 계기가 되어 이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문학운동으로 그 활동무대를 옮기면서 무산자문학운동의 조직단체인 「대만문예작가협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날로 파시즘화 하는 일제의 사상통제로 저지되고 이후 표면적으로 무당무파를 내세우는 『南贖』, 『先發部隊』, 『第一線』, 『臺灣文藝』, 『臺灣新文學』 등 일련의 문예지를 통한 좌우익 연합전선의 좌익문학운동을 펼치게 된다. 그중 『선발부대』, 『제일선』, 『대만신문학』은 그 구성원과 작품경향으로 보아 좌익경향이 짙었으며, 『남읍』과 『대만문예』는 좌우익 사상경향이 고루 나타난다. 대만 좌익문학은 민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무산계급의 문예를 주장하였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대중화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향토문학논쟁과, 대만화문논의로 진전되었다.

8) 최유찬, 「1930년대 한국리얼리즘론 연구」,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세계, 1989), p.305

9) 대만의 좌익문학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곧 출판예정인 쉐저 『한국프로문학과 비교를 통해 본- 일제시기 대만좌익문학연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대만 좌익문학이론의 전개과정과 좌익경향의 시, 소설을 고찰하였다.

한국문학과 비교에서 당시 대만문단을 살펴보면, 우선 좌익문학의 대두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 이전에 이미 개화기문학을 거쳐 자유시, 낭만시의 등장과 계몽주의, 그리고 순문학 등 근대문학이 상당수 누적되어 왔고, 3·1운동 이후 고양된 민중의식과 사회주의의 문예분야로의 파급으로 경향문학 혹은 프로문학이 문단에 등장한 데 비해, 대만은 1920년대 신구문학논쟁과 더불어 곧바로 좌익문학이 대두되었으며, 한국의 프로문단이 「카프」를 결성해 조직적이고 결집된 무산문예운동을 전개한 데 비해, 대만의 좌익문단은 시종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나프」를 본받아 대만무산계급작가동맹을 목표로 1931년 결성된 「대만문예작가협회」가 시기적으로 일제의 파시즘화와 맞물리며 초기부터 일제의 탄압으로 와해되어 조직적인 좌익문단의 탄생이 막히게 되었다. 또한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만인의 언어생활 때문에¹⁰⁾ 좌익문학의 주요쟁점이던 대중화논의가 창작방법으로서보다는 문자개혁의 차원에서 집중논의 되면서 약 10년에 걸친 조직적 활동을 통해 한국의 프로문단이 대중화논의와 창작방법론, 농민문학론, 동반자작가론 등 다양하고 풍부한 문학론을 펼친 데 비해, 대만 좌익문단의 창작방법론은 토론의 형태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선에서 그쳤다.¹¹⁾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사회혁신이란 가치를 내걸고 전개된 양국의 좌익문학론은 당시 양국이 처해 있던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식민자본주의체제의 피해와 모순을 무산자의 입장에서 폭로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진보적 문학임을 자처하며 일제시기 가장 비중 있는 문학론을 전개하였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점과 좌익문단의 상이점을 고려하여 양국의 반좌익적 민족주의 문학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10) 대만의 인구분포는 크게 閩南人, 客家人, 원주민(모두 9族)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중 수적으로 많은 랑을 차지하는 閩南人과 客家人은 주로 대륙의 福建省 漳州, 泉州와 廣東省에서 이주해 온 한인들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문자가 없는 것이 많았으며, 당시 畚面언어로 제창된 북경주변 지역의 백화문과는 거리가 많았다.

11) 자료 발굴의 미진함도 당시 상황을 밝히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葉榮鐘과 張深切의 민족문학론

1) 葉榮鐘의 第三文學論

1932년 『남음』의 「卷頭言」에 실린 葉榮鐘의 第三文學論¹²⁾은 먼저 현재 대만의 프로문학이 진정한 프로문학인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프로문학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프로문학의 논의가 발생한 이래 우리 대만에 언제 진정한 프로문학이 있었던가? 의문이다. 「부모의 밥을 먹고」, 「부모의 돈을 쓰는」 사람들이 써낸 몇 권의 소책자를 프로문학이라 할 수 있는가? 레닌, 마르크스의 빈껍데기를 나열했다고, 경제공황이나 자본주의 제삼기란 새로운 명사를 배웠다고 하여 프로문학이라 할 수 있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그들의 작품이 프로문학이라 하자. 그러나 대만의 무산대중은 도대체 몇 명이나 그들의 작품을 이해할 것인가?¹³⁾

여기서 그는 작자와 독자층의 측면에서 프로문학을 검시하고 있는데 작자 문제는 진정한 프로의식이 모자란다는 데 있고 독자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작품을 독자들, 즉 무산대중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어 그는 대만인의 특성을 갖춘 제삼문학론을 전개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 집단의 특성에 입각하여 현재의 대만인 전체의 공통의 생활, 감정, 요구와 해방을 묘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회집단은 인종, 역사, 풍토, 인정이 같기 때문에 일종의 공통적인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계급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만인은 계급적 분자이기 이전에 먼저 대만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구유해야 한다. 제삼문학은 이러한 전 집단의 특성으로 현재 대만인 전체의 공통생활과 감정, 요구와 해방을 묘사하는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전 집단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그는 대만의 특수문화와 대만의 사

12) 葉榮鐘, 「第三文學提唱」, 『남음』1권8호(남음사, 1932.5.10)과 「再論第三文學」, 『남음』9,10호(남음사, 1932.7.15)을 통해 발표되었다.

13) 奇(葉榮鐘), 「第三文學提唱」, 『남음』1권8호(남음사, 1932.5.10)

14) 앞과 동일.

회환경을 핵심 내용으로 들었다. 그중 대만의 특수문화는 대만의 고유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화로, 각국의 특수한 환경—산천, 인경, 풍속에서 각국의 특수한 문화가 발생하듯이 대만의 고유문화는 漢민족 사천 년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대만의 특수한 환경 아래 배양하며 또한 일본문화의 세례를 받은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만의 사회환경은 당시 대만인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 제 방면의 생활과 이러한 생활 중에 받은 특수한 교육과 교화 등으로 형성된 사회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문화와 사회환경이 대만인이 갖추어야 할 일종의 집단 특수성이고 이는 또한 계급의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 둘이 합쳐진 것, 즉 집단의 특수성에 입각한 것이 제삼문학이다.

그런데 당시의 문단상황과 관련해 제삼문학론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 관점이 문예대중화의 연장선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대중화는 원래 좌익 문단의 대중성 제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니¹⁵⁾ 대만에서는 무산대중들의 실제 언어생활과 관련하여 창작방법보다는 언어개혁차원에서 집중논의 되었고¹⁶⁾ 바로 제삼문학론이 발표된 잡지 『남음』은 이러한 대만어 창작의 실험장이 되기도 했다. 葉榮鐘은 발간사를 통해 「어떻게 사상과 문예를 보편화시킬 것인가」와 문예창작의 발표지면 확대라는 측면에서 남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¹⁷⁾ 그의 「대중문예에 대한 기대」에서 보이듯이 프로문학의 논지와는 달리 문예의 계몽운동으로서의 대중화를 역설하고 있다.

일본 내지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중문예」는 일반 문화 소양이 낮은 대중들에게 보여주는通俗문예이다. 그 발생원인은 자연히 문학과 사회의 관계—왜냐하면 문학은 이미 특수계급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로 문학이 전체 사회와 인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곧 의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문예는 대중과 접근되어 발전하고 대중에게 오락과 위안을 주며 대중들의 본래 모습과 사상, 감정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의 취미와 품

15) 대중화 논의의 발단은 1930년 黃石輝가 좌익잡지 『伍人報』에 발표한 「어째서 향토문학을 제창하지 않는 것인가?」(「怎樣不提唱鄉土文學」)로 노동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문예를 창작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6) 臺灣語文論爭과 鄉土文學論爭이 그것인데 둘 다 창작언어 문제와 관련성이 깊다.

17) 奇, 「發刊詞」, 『남음』창간호(남음사, 1932.2.1)

성의 함양을 빌어 그들의 인생을 예술화하기 위해서는 문예가 더욱 통속적이
이지 않으면 안 된다.¹⁸⁾

대중취미와 오락성을 갖춘 일본 대중통속문학으로 당시 문예대중화를 논하고
있다. 문학이 일부 특수계급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체사회와 인생의 기탁물이
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대만문예는 대중의
무료를 달라고 「대중에게 오락과 위안을 주는」 「줄거리 중심」의 「대만의 풍
토, 인정,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통속문학이다. 이를 통해 葉榮鐘이 견
지한 문예대중화에 대한 관점은 좌익문학적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⁹⁾ 그
가 제기한 문예대중화에서 대중은 곧 특권층에 대한 평민을 의미하는데 이는
또한 그의 구문학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는 초기부터 귀족중
심의 구문학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하여 왔다.²⁰⁾ 그 이유로는 구시가
일반민중과 유리된 특권계층의 오락물이며 진실한 정감의 표현이 아닌 형식
위주의 문자배열에 불과하다는 데서 찾았다.²¹⁾ 즉 葉榮鐘은 문학이 특권계층
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민중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
평민이 쉽게 이해하는 줄거리 위주의 오락성이 가미된 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대중화로 인지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평민의 문학을 증시하면서도 프로문단
의 무산대중을 위한 문예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가 프로문학을 반대하면서 제기한 세삼문학의 근거인 대만의 특수
성이란 민족 혹은 국가, 혹은 한 집단의 특수성, 즉 민족주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다. 비록 그 구체적 내용인 특수한 문화와 사회환경을 어떻게 문학에서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추상적인 논의로 그쳤지만 그
의 민족주의는 프로문학이 세계적인 사조의 모방임을 비판하는 데서도 드러

18) 奇, 「大衆文藝待望」, 『남음』1권2호(남음사, 1932.1.17)

19) 이에 대해 施淑도 「혁명투쟁을 버리고 오락과 위안만을 추구하는, 계급입장을 버리고 풍토와 인정만을 바라는, 의식형태를 버리고 예술화된 인생의 문학사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계급의식과 사회실천을 강조하는 『대중화』 문예와 관념적으로 근본적인 분기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施淑, 「문협분열과 30년대초 대만문예사상의 분화」(文協分裂與三〇年代初臺灣文藝思想的分化), 『兩岸文學論集』(新地文學出版社, 1997), p.23

20) 葉天籟(葉榮鐘), 「타락한 시인」(墮落的詩人), 『대만민보』1929.1.8일자

21) 이 의견은 『남음』에 실린 몇 편의 「권두언」에서도 중복된다.

난다. 때문에 제삼문학은 귀족문학도 아니고, 프로문학도 아닌 제삼의 문학, 즉 민족문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관점으로 당시의 상황을 규정짓는 것이 허락된다면 본토문학론이라 해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²²⁾ 이는 당시 독자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대만의 상황과 그가 줄곧 우익적 입장에서 민족운동에 참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각유무를 떠나 조국인 중국과 분리하여 대만의 처지를 사고했음을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그의 제삼문학론은 그것이 중국과의 대립적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만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귀족문학과 프로문학의 반대적 시각에서 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강조한 대만 특수성은 세계적인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프로문학을 반대하고 대만이란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여전히 민족주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²³⁾ 제삼문학이 대만의 특수성을 갖춘 문학으로 세계문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누누히 지적하고 있는 것도 그가 민족주의 문학관에 입각해 있음을 입증하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문학(第三文學)만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의 문학이며 나아가 세계 문학계에 기여할 수 있다. 소위 세계의 문학이라 함은 반드시 하나의 조미료로 맛을 통일하지 않는 문학일진대 雄偉한 北歐의 문학이나 纏綿悱惻한 南歐문학 같은 것만이 찬란한 금일의 세계문학을 형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제삼문학의 건설은 대만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와 가치에 의해 서일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도 세계문학이 부여한 사명인 것이다.²⁴⁾

결국 葉榮鐘의 제삼문학론은 문예를 평민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평민들이

22) 葉榮鐘의 제삼문학론을 본토의식 내지 본토론(중국대륙과 대립적인 측면에서)과 연결하여 논의한 것으로는 游勝冠, 『대만문학 본토론의 흥기와 발전』(『臺灣文學本土論的興起與發展』(前衛出版社, 1997)과 柳書琴, 「전쟁과 문단—일제말기 대만의 문학활동(1937.7-1945.8)」(『戰爭與文壇—日據末期臺灣的文學活動(1937.7-1945.8)』(대만대학 역사학연구소 석사논문, 1994.6) 등이 있다.

23) 松永正義 역시 제삼문학론의 지역문화특성에 대한 강조는 비록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주관, 객관의의상 약소민족의문학의 정치주장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松永正義, 「대만문학의 역사와 개성」(『臺灣文學的歷史與個性』, 葉石濤譯, 『토지가 없으면 문학도 없다』(沒有土地哪有文學)(遠景출판사, 1985)

24) 주 13과 동일.

받아들일 수 있는 대만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민족문학의 건립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프로문학과와의 관계에서 제기된 제삼문학론은 葉榮鐘의 계급적 위치와 당시 좌우익의 사상적 기류, 이에 바탕한 민족운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葉榮鐘은 초기 대만의 자산계급의주의 민족운동을 장기적으로 지도 하였던 林獻堂의 비서로 오래 동안 일했으며 그 자신도 자산계급의 민족운동인 의회설치청원운동에 참가하였고 문협 분열 후 대만민중당, 대만자치연맹 등 우익민족운동의 일선에서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의 반프로문학의 원인이 사상적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계급의식을 토대로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무산자운동에 반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의 저작인 『대만민족운동사』²⁵⁾에 일제시기 민족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좌익정치운동에 대한 기제가 거의 빠져 있는 데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²⁶⁾ 그의 이러한 우익적 입장이 1931년 정치운동이 케멸되고 문학운동이 흥기하던 시기에 문단에 성행하던 좌익문학을 비판하는 제삼문학론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반좌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족주의의 입장은 식민지자치를 본질로 하는 초기 자산계급중심의 민족운동에서 내세운 「대만고유의 문화제도도와 특수한 민정풍속」을 인정해 달라는 요지와 동일하며, 사실상 그가 마르크스의 빈 꺾매기 운운한 흔적은 적어도 현재 발굴되어 있는 좌익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계급의식의 고취보다는 식민지배계급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더 큰 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도 프로문학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의 우익적 정치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제삼문학론을 당시의 시대상황과 역사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葉榮鐘이 평민문학을 지향했으면서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사실상 일치하였던 당시 평민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으며, 제삼문학론에서도 대만인이 처한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그가 제기한 집단의 특수성, 즉 특수한 문화와 사회환경 역시

25) 이 책의 저자는 蔡培火, 陳逢源, 林柏壽, 吳三連, 葉榮鐘등이나 실제 집필은 葉榮鐘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自立晚報에서 1971년에 펴 내었다.

26) 楊照, 「仕紳觀點의 일제시기 대만사」(「仕紳觀點의日據臺灣史」), 『中國時報』1998. 5.19일자

실제문학창작과 연결되지 않아 추상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마치 사회조직이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이 생활을 결정짓는다는 테너류의 환경론에 가깝고, 후자는 이에서 나아가 사회, 문화환경을 특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하지만 당시 대만의 사회조직과 경제형태가 고려되지 않아 단순한 생활결정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생산과 분배가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오류로 지적되며, 이는 그의 우익적 정치사상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삼문학론은 프로문학이 세계적인 보편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견제하고 대만의 특수성, 즉 향토성을 인정하고 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프로문학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일제의 통치에 대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타민족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것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켜 강화되어 가는 일제의 검열 아래 소극적이거나 지속적인 저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張深切의 道德文學論

張深切의 도덕문학론은 1935년 『대만문예』에 실린 「대만 신문학 노선에 대한 한 제안」과 그 속편에서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그는 문학이란 인류의 정신생활을 보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 영향이 큰 만큼 정확한 문예노선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근대문학의 근원을 인도주의, 혹은 주관적 도덕주의와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계급적 도덕주의로 나누고 전자의 예로 톨스토이, 도스트예프스키를, 후자의 예로 마르크스와 레닌을 들었다. 그런 후 이 두 가지의 노선 중 자신은 어느 것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가지 主義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찬동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인도주의는 너무 추상적, 개념적, 평면적이며(주관적 인도주의 역시 이와 같고 너무 개인적, 비사회적, 비과학적이다) 계급 도덕주의는 너무 편협하고 기계적이고, 관념적이며 협의적이다... 우리가 만약 단지 의식적으로 무산계급만 두둔한다면 계급문학은 궁극적으로는 무산계급의 문학이 될 수 없고 심지어는 도리어 반동문학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계급문학이

만약 순수한 계급적 수단이 되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뿔 수밖에 없고, 개인을 위한 수단이 되면 쉽게 無稽之談에 빠지게 된다. 양자가 모두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문학의 신노선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소비에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르조아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국방작가회의에서 제기된 극동지역에 대한 강조 등은 모두 소련문학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 영국 자유주의의 부흥, 미국 좌익문학이 「체복 예술가」들의 공식적인 마르크스 문학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과 일본 프로문학의 신동향 등도 모두 계급문학이 그 내부에서 모순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²⁷⁾

여기서 대만문학의 신노선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프로문학의 천편일률적인 수단적 성격을 반대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학노선은 신도덕 위에 구축해야 하는데 신도덕이란 사회의 모든 과학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찾아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 바 인류의 생리조직과 사회조직, 경제조직과 지리역사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결과를 문학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다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 논리는 쉽게 말해 일체의 상식과 주관을 배제하고 되도록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문학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어진 사람 중에는 절대로 부자가 없다」든가 혹은 「자본가는 모든 악인이다」라는 추상적, 관념적인 언어를 믿지 말고 과학적인 상식과 虛心으로 사회와 인류의 이면을 투시하되, 기존의 형식과 내용, 취재, 묘사 등에 구애받지 않고 부분으로 전체를 작성하게 하는 『春秋』의 필법과 『道德經』의 虛心으로 현실을 자유자재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신노선이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노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러한 과학적인 태도로 대만의 특수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고정시켰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대만은 원래 대만 특유의 기후, 풍토, 생산, 경제, 정치, 民情, 풍속, 역사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도있게 연구 분석해 내어야 한다. —그 발생과 형성과정, 그 형태와 기능을 살펴서— 정확하게 사상을 파악하고 영활하게 문자로 표현하며 선입견에 구속되지 않고 불순한 목적에 기울지도 않는 오로지 「眞과 實」을 관철하고, 오로지 「善과 惡」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27) 張深切, 「대만 신문학 노선에 대한 한 제안」(對臺灣新文學路線的一提案), 『대만 문예』2권2호(대만문예연맹, 1935.2), p.85

할 때만이 대만문학은 자연히 노선분쟁을 없애고 정확한 방향을 구축할 수 있다.²⁸⁾

즉 그는 대만 신문학의 방향을 기존의 어떠한 노선도 배제하고 오로지 과학적 분석에 의거하여 추출한 대만의 일체의 「眞과 實」위에 구축하며 대만사회의 정세,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속편²⁹⁾을 통해 그는 다시 한 번 도덕의 문학을 주장하는데 도덕이란 일체의 과학적인 방법(인류의 생리조직과 사회조직, 경제조직, 역사에 대한 분석)으로 해명이 가능한 것으로 문학에 적용될 때는 구미의 인도주의와 사회주의가 바로 문학적 도덕이며, 공히 불완전한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초월하는 완전한 도덕의 문학이 신노선임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그런데 도덕이란 「道」(일체사물의 존재합리성, 가치비고정적)와 「德」(선에 근거한 존재의 변화, 가치지향적)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창출이며 문학가는 이에 맞추어 문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이란 인간의 생리조직, 경제조직, 사회제도, 지리기후, 역사, 民情, 풍속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것이므로 이를 모두 아우르는 작품이 주관에 빠지지 않고, 사악을 두둔하지 않고, 문학가의 양심이 도덕에 기초하는 신문학의 탄생이라는 논지를 중복하고 있다.

張深切의 프로문학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하여 건립한 도덕문학은 결국 민족주의 문학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마치 葉榮鐘의 경우와 같아 보이지만 도덕문학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프로문학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철학적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다소 난해하지만 그의 도덕문학은 유물변증법적 역사유물관의 시각으로 老子를 이해한 데서 출발한 것인데,³⁰⁾ 老子의 道와 德의 관계를 빌어 자연과 문학간의 관련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그에 따르면 道는 자연법칙인데 자연법칙은

28) 앞과 동일.

29) 張深切, 「대만신문학 노선에 대한 한 제안(속편)」, 『대만문예』2권4호(대만문예연맹, 1935.4), pp.94-99

30) 張深切는 중국철학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를 모은 『張深切全集(전12권)』(文經社, 1998)에 중국철학에 대한 그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완전히 선한 것만은 아니므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을 德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도덕은 사회상을 분석한 과학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이런 도덕의 추구과정이 문학가의 기초이며 이런 기초가 있고 난 뒤에야 문학가는 사회의 실체를 심도 있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사회의 실체를 해부하는 자연주의 문학과 과학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사실주의 문학과가 복합된 듯한 이 문학론은 쉽게 말해 결국 구성원이 처한 자연적 조건과 사회환경을 통찰하여 「높은 자는 낮추고 아래에 있는 자는 높이며 여력을 다해 부족함을 메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념을 당시 대만이 처한 역사적 현실과 대입시켜 보면, 「높은 자」는 권력을 가진 통치계급을, 「아래에 있는 자」는 억압받는 대다수 기층민중의 상황을 가르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무산자의 편에서 저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시비곡직을 가리는 프로문학이 이런 면에서 인정되며, 여기다 다시 프로문학이 이루어내지 못한 특수성 내지 지역성, 향토성을 가미한 문학, 즉 도덕문학이란 이름의 절충적인 민족문학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張深切가 당시 대만문예연맹의 핵심간부였고 실제적으로 『대만문예』를 이끌었던³¹⁾ 점으로 보아 좌우사상의 문예적 통합을 내세우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대만의 신문학운동은 1931년 정치운동의 궤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직된 각종 문학단체와 문예지의 발간에서 알 수 있듯이 외적으로는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민족의 처지와 기층민중의 처지를 부단히 표현해 내어 적극적으로 현실참여 정신을 드러내었다. 이 시기 프로문학이 문단의 주류였음은 바로 이런 사정을 말해 준다. 그러나 또한 이들 잡지의 단명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일제통치당국은 검열제도를 강화하고 사상통제에 들어갔다. 날로 파시즘화 하는 그들에게 저항과 비판정신을 강조하는 프로문학의 성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그 결과 1934년 문예연맹 결성시에 이르러 모든 민족해방을 위한 정치운동이 막힌 상태에서 문학운동만이 유일한 돌파구였고 때문에 자연히 프로문학과 비프로문학의 대단합을 통해 저항

31) 巫永福, 「시대의 목격자—내가 아는 張深切」(時代見證者—我所了解的張深切), 『自由時報』1998.2.23, 24일자

을 계속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전 대만의 문학가를 규합하고 강력한 문학단체를 만들어 문학운동을 전개하자」³²⁾는 취지에서 성립된 문예연맹은 이름 그대로 각기 다른 문학기향을 가진 작가들의 대단함으로 자연 노선상의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張深切의 도덕문학론은 文聯 각파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용하면서 찾아낸 절충적 문학론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다음 말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어쨌든 나는 차후의 문학노선이 반드시 도덕문학의 노선으로 합류되리라 믿는다. 마치 시대가 모여 大河로 흘러들고, 못 별들이 태양 앞에서 빛을 잃는 것처럼 일체의 파벌문학은 도덕문학과 합쳐질 것이다. 나는 문예부흥이 곧 도덕문학의 부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체의 문학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³³⁾

그런데 도덕문학론에서 보여준 프로문학의 수용은 또한 張深切 개인의 행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의 일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反植民사상이 농후한 양부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경시기(1917-1923)에 이미 사회주의자 彭華英과 가까이 지내면서 적어도 사회주의 경향과 접촉하였고,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해시기(1923-1925)는 사상적으로 점차 좌경화 하였고 적극적으로 국외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직 계몽과 정치개량 위주의 대만 내 민족운동에도 일조를 하였으며, 그 후 廣州에서 대만독립을 강령으로 한 단체 대만혁명청년단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학생수업거부사건에 개입하여 입옥되었다. 그 후 적극적으로 문학운동, 연극운동에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저항정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이렇듯 사회주의 사상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으며 민족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로서는 당시 대만의 현실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그의 소설 「암 오리」(鴨母)³⁵⁾에는 오리를

32) 賴明弘, 「나의 문학회고—대만문예연맹 창립의 단편기억(我的文學回顧—臺灣文藝聯盟創立的斷片回憶)」, 『新文學雜誌叢刊3』(東方文化書局復刻本, 1981)

33) 주 29와 동일.

34) 張志相, 「張深切 및 그의 저작 연구」(張深切及其著作研究)(成功大學 역사언어연구소 석사논문, 1992.7)

35) 『臺灣文藝』, 창간호(1934.11.5), pp.44-53

키우는 빈농 사이의 관계 변화를 통해 농촌사회 계급 충돌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시중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이는 그가 초기 좌익입장에서 민족운동에 참가했으나 외부의 힘에 밀려 더 이상 운동이 어려워지자 민족해방을 우선으로 하는 선에서 소극적이고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택해 우익으로 전환한 데서 확인된다. 그는 이 시기 정치적으로 우익의 개량주의에 속하는 「東亞共榮協會」의 기관지 『東亞新報』의 기자로 재직하면서 최소한도의 합법적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어떤 형태로든 민족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민족주의적 입장은 문학면에서 좌우합류를 포박하는 민족문학, 즉 도덕문학의 제출을 시도한 주요요인이었다.³⁶⁾

그는 문예대중화와 관련한 논의에서도 葉榮鐘과 동일하게 대중을 중시하면서도 구문학 형식에 러시아의 신문학 형식을 도입한, 말하자면 삼국연의, 수호전, 東周列國 등 줄거리의 과장이 심하거나 封神演義, 聊齋誌異 등 괴담이나 해학적인 내용을 현대적으로 변안하여 대중에게 문예를 보급하자는 주장을 하였다.³⁷⁾ 즉 張深切는 프로문학에서 말하는 운동으로서의 문예가 아닌 일반 대중을 모두 포괄하는 입장에서 범민족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외 도덕문학론은 세계문학의 발전 속에서 대만의 특색을 갖춘 문학을 조감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학성의 강조도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대략 대만의 차후 취해야 할 신노선이 명백해졌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혹여 아직도 내게 「도덕문학이 일종의 자연과학이지 문학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반드시 예술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묻는 이가 있을 줄 안다. 옳은 말이다.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분야가 있어 결코 문학 이외의 과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도덕은 과학의 형

36) 그런데 대만에서 張深切의 문학론은 앞의 張志相 논문뿐 아니라 柳崧琴의 논문, 林倅妃의 「일제시기 대만 신문학운동중의 대만의식과 중국의식」(日據時代臺灣新文學運動中的臺灣意識與中國意識), 東吳大學 사회학연구소 석사논문, 1994.6, 游勝冠의 앞의 책, 陳芳明的 「부활한 張深切」(復活的張深切), 「中國時報」1998.2.12일자, 「張深切를 찾아서」(追尋張深切), 『聯合文學』151기, 1997 등에서처럼 대부분 본토론과 연결하여 연구되어 있다.

37) 『『臺灣文藝』의 使命』(『臺灣文藝』的使命), 『대만문예』2권5호(대만문예연맹, 1935.5), pp.19-21

식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응용되며 결코 해부와 분석을 위해 예술성을 잃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적 분석은 작가가 갖추어야 할 상식이고 그 전제 아래서 작가는 자신의 머리에서 정리, 해부, 분석, 소화하고 걸러낸 것을 다시 예술성으로 윤색하고 문학적 수단을 이용해 표현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문학은 결코 공식화, 기계화, 혹은 과학화로 떨어지지 않는다.³⁸⁾

비록 어떻게 문학성, 예술성을 살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지만 일단 프로문학의 도식성을 경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도덕문학론은 제삼문학론과 마찬가지로 문학의 민중성을 문제삼고 있으며 프로문학의 세계주의에 대하여 대만의 특수성을 살린 문학을 지향하고 있으나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먼저 비록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을 분석한 결과(道)를 준거로 문학을 할 것(德)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논지에 따르면 사회를 자연 생태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사회조직과 정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비록 생경한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여도 대만 내 프로문학과는 접목시키지 못해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道와 德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문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작가의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모든 사회적 환경의 반영이란 지극히 일반적인 문학논의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또한 민족운동의 출로가 막힌 시기에 좌우문학의 통합과 전체민족을 한 단위로 묶는 이론의 창출이라는 점에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4. 한국의 민족문학론

프로문학의 대척적 지점에서 논의된 1920년대 한국의 민족주의 문학론은 일단 정치와 문학의 문제가 접합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민족운동의 고양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새로운 사조인 사회주의의 유입으로 민족운동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38) 주 29와 동일.

민족주의 우파가 일제와의 타협적 노선인 개량주의로 나간 데 비해 비타협적 노선을 취한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를 가지면서 좌우연합 진선을 결성, 일제와의 투쟁을 지속하였다.

초기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사회개조를 위해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이광수, 최남선은 이 시기에 오면 프로문학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국민문학이란 이름의 민족문학 기치를 든다. 기존의 많은 문학사가들이 공통적으로 1920년대 후반에 등장한 국민문학, 민족문학을 프로문학과 대립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은³⁹⁾ 바로 이 시기 민족운동의 성격변화와의 상관성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26년 이후, 즉 계급문학파가 기세를 올리고 있던 시기로 민족문학파는 계급문학파가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자국 문화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과 민족언어의 우수성을 고양하며, 동포애를 진작시키고 현실대응을 위한 민족적 단합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문학의 건설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상적인 문학양식으로 시조와 민요를 들었다.

시조부활론의 대표적 주창자는 최남선으로 그는 시조를 「오랜 민족생활이 같고 광년 유일한 구슬」이라고 보고 프로문학에 대항하여 유일한 국민문학인 시조를 되살리는 것을 민족문학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삼았다. 그의 논지는 우선 자기 스스로를 알고, 제 본질을 검토하며, 근거 있는 자기로부터 특히 출발하기 위해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성정이 품조를 빌어 그 渦動의 一 形相을 구현한」⁴⁰⁾ 시조를 부활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조는 가장 조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시는, 조선인의 시는 아무것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더 조선인의 思想, 感情, 苦惱, 希願, 美醜, 哀樂을 정직하게, 명백하게 咏嘆 賞味한 것이어야 하며, 그런데 그 제일조건, 근본조건으로 무엇이든지 「조선스러움」

39)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진구문화사, 1986)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성문각, 1986),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일지사, 1987)에서 모두 이런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40) 최남선, 「朝鮮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 『조선문단』5월호, 1926.5,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편, 『六堂崔南善全集9』(현암사, 1974), pp.386-390

이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라야 조선인의 생활내용 又 생활상 수요품으로 의외의 가치가 있을 것은 물론이요, 進하여 세계문학 세계詩의 일부를 지음에도, 세계가 본디부터 조선에서 요구하는 그것인 이러한 朝鮮의의 詩라야 할 것이다.⁴¹⁾

무엇보다도 조선스러움을 강조하는 이 문학관은 곧 민족주의 문학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가 시조를 내세워 자기 것을 찾는 문학운동을 제창하게 된 것은 당시 신흥 문단에서 조선의 특색을 드러내는 문학에 대한 「성찰과 感悟와 준비와 노력이 보잘것없는」 것에 섭섭하고 또 이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조는 조선문학의 精華이기 때문에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학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문학 속의 조선문학을 중시하는 것은 민족주의 문학관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한데 특히 그는 세계를 말하고 인류를 말하면서도 자기만을 잊어버리고 내어 던지는 것은 특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시조의 향토성,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부분을 떠난 전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방을 내어놓은 세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鄉土性を 除斥한 人類的의 예술이란 것이 있을 리 없는 것이다. 鄉土性이 문학의 全性質 全部面일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한 一要素요, 不可相離한 一基調일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니, 가령 詩로 말할지라도 그 形에서, 그 色香味에서 그 표현되는 態度, 條件, 過程, 物的 形的의 依支에서 능히 各地方, 各民族, 各集團의 本질, 특질을 따로따로 표현하여 각기 一朵花를 지어야만 그것이 한데로 統攝되고 總攬되는 곳에 百花燎亂한 세계의 藝苑, 세계적 大 藝術殿堂이 출현될 것은 자명의 理이다.⁴²⁾

민족주의 문학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말 속에는 프로문학의 보편주의, 세계성을 겨냥한 비판이 엿보인다. 이 입장에 동조하여 주요한, 이병기, 이운상 등은 시조부흥운동에 전념하고 손진태, 이병기 등은 최남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조의 학문적 연구에 힘을 쏟았다.

한편 이광수는 민요예찬론을 펴면서 민요가 조선 민족에게 특별히 맞는 리듬을 가지고 있고 조선 민족의 감정이 흐르는 모양과 생각이 움직이는 방법

41) 앞주와 동일.

42) 앞과 동일.

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⁴³⁾ 그런데 이들의 국민문학론은 계급문학과가 즉각 반발한 것처럼⁴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조와 민요에 드러난 민중의 삶의 현장과 애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의 현실인식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국민문학론의 가장 큰 맹점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절대적인 과제였던 민족해방을 외면하였으며, 실제현실에서 벗어나 고답적인 복고적 세계에 은둔하거나 혹은 도덕의 세계로 고립화하는 비현실성을 문학의 독자성이란 이름으로, 계급의식을 초월한 민족의식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⁴⁵⁾ 당시는 시대적 변화와 민족모순, 계급모순이 심화되어가던 시기로 이러한 「조선정신」, 「조선심」의 추상적이고 편협적인 정신으로 민족을 행복의 길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프로문학론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던 문학의 세계적 보편성의 문제를 자국문학만이 갖고 있는 독자성 내지 특수성의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 국민문학론과는 성격을 달리하면서 프로문단에 대한 반성과 민족문학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이른바 절충주의 문학론이다. 양주동, 염상섭이 내세운 의견을 통칭하는 이 문학론은 먼저 국민문학론과의 차이점이 프로문학에 대한 완전한 배척이 아니고 그 일부를 수용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데 있다.

국민문학과와의 이론가에 속하기도 했던 양주동과 염상섭은⁴⁶⁾ 조선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문학의 역할 역시 중요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프로문단의 주장처럼 오로지 프로문학만이 유일한 문학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 문학의 근본정신만은 존중할 가치가 있

43) 이주형, 『한국근대소설연구』(창작과 비평사, 1995) p.383에서 인용.

44) 김동환은 「시조배격 소의」, 『조선지광』(1927.6), pp.1-11에서 시조의 형식, 창법, 작가층, 내용, 문학적 표현에 있어 폐쇄적, 봉건적, 비현실적이며 사대의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하였다.

45) 이 관점은 임규찬,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태학사, 1998) p.345에서 인용한 것임.

46) 양주동은 「문단전망」, 『조선문단』(1927.2)에서 「국민문학의 건설은 실로 우리 현 문단의 총목표라야 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염상섭도 최남선의 시조부활론에 동조하여 시조가 「가장 조선다운 조선인다운 또한 조선말에 들어맞는 형식」(「의문이 왜 있습니까」, 『新民』 1927.3)이라고 하였다.

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당시의 조선사회에 있어 프로문학의 발생을 필연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문학상 취재는 그 범위가 자못 광범한 것이니 우리는 프로생활과 프로의식을 제재로 한 문학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요 한 결을 나가서 그것의 사회성 현실성을 많이 포함하였다는 장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⁴⁷⁾

정신문화상으로 보면 민족주의는 자민족의 개성에 중심을 둔 문화—국민문학의 수립을 기도하는 반면에 사회운동 쪽에서는 보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문화—계급문학의 고조로서 전통적 관념의 파기 및 개조에 분망하게 된 것도 필연한 현세일 것이다.… 그러한 이 두 경향이… 피압박민족의 실제행동에서 양자가 합동 일치하여 각자의 운동을 일층 권위 있게 함이라 생각한다.⁴⁸⁾

프로문학을 수용하는 원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문학이 당시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 곧 무산문학이라는 인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프로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적으로 프로문학을 인정하지만 당시 문단의 프로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먼저 양주동은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프로문학도 「문학인 이상, 문학구성적 제요소를 구비해야 될 것은, 물론이 안인가. 프로문학이라는 명칭이 있는 이상, 그것은 오즉 문학적 표현과 내용으로서야, 존재를 허할 수 있다」⁴⁹⁾고 하여 내용과 기교를 중시하고 당시 조선 프로문학의 실제적인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⁵⁰⁾ 그가 프로문학계에 일고 있는 박영희와 김기진의 사이의 내용·형식에 관한 논쟁을 계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문장에서 이런 논지가 잘 드러나는데 박영희의 논지는 고려할 가치도 없고 김기진이 문예비평에 있어 외제적 비평을 주로 하고 내재적 비평을 從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本末顛倒라고 보고 그 이유를 내재적 가치

47) 양주동, 「철저와 중용」, 『조선일보』1926.1.23일자

48) 염상섭, 「反動傳統문학의 관계」, 『조선일보』1927.1.15일자

49) 양주동, 「문단전망」, 『조선문단』(1927.2), p.25

50) 양주동, 「文壇如是我觀」, 『新民』(1927.5.6)에서도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프로문학을 비판하고 있다.

가 걸여된다면 문학이 그 자체로서 성립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그는 당시 문단의 프로문학이 고의성을 많이 포함하는 목적의식 하에 쓰여진 것이며 물기교주의로, 이런 작품은 예술성을 해치고 감정이입적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간접적으로 프로문단을 비평하였다.⁵¹⁾

염상섭은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작가가 일정한 주의라든가 일정한 경향에 구속되는 프로문학을 비판하였다. 「문학은 아모것에도 예속된 것이 아니다. 어서한 종교나 운동에 종속적 이용물이 되고 어서한 계급의 특유물이 되거나 선전기관이 되며 완물이 될 것이 아니다.⁵²⁾」는 말에는 그의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개인성을 배격하고 집단 의식을 고취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정치적 현상, 혹은 사회적 사태의 측면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으나 문학의 常道는 아니라고 하며 문학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나 창작의 동기 및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식 내지 개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⁵³⁾ 그는 집단 의식을 고조하는데 목적을 두는 프로문학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개인성, 개인의식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급문학 비판⁵⁴⁾에 대한 박영희의 반론⁵⁵⁾에 대해 「인류는 장래에 계급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아니라(그 때는 프롤레타리아계급도 소멸할 것인고로) 일반 인류의 노동문학을 창조하리라 하거니와 나도 대체로 가튼 의견이다.⁵⁶⁾」라고 하여 자신이 부정한 것은 계급적 속박에 묶여있는 프로문학이고 일반 인류의 노동문학은 긍정한다고 비교적 동조의 빛을 나타내기도 했다.⁵⁷⁾

51) 양주동, 「문예비평가의 태도·기타」, 『동아일보』1927.2.28-3.4일자, 「다시 문예비평가의 태도·기타」, 『동아일보』1927.7.12-22일자

52) 염상섭, 「작가로서는 무의미한 말」, 『개벽』(1925.2)

53) 염상섭, 「문학상의 집단 의식과 개인의식」, 『문예공론』(1929.5)

54) 염상섭,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與함」, 『조선일보』1926.1.22-2.2일자

55) 박영희, 「신흥예술의 이론적 근거를 논하여 염상섭군의 무지를 박(駁)함」, 『조선일보』1926.2.3-19일자

56) 염상섭,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대한 ‘피’氏의 언」, 『조선문단』(1926.5)

57) 임규환은 염상섭의 이 시기 작품과 평론을 점검하고 그가 당대 현실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계급문학에 대한 존재를 시인하고, 인생자체를 당대의 사회적 산물로 파악하면서 사회성·현실성을 문학의 근본으로 여겼다고

양주동은 또한 국민문학론에 대해서도 하등의 구체적인 이론이 없음을 비판하고⁵⁸⁾ 새로운 문학론, 즉 프로문학과 민족문학과의 주장을 절충하는 민족주의 문학론을 내세웠다.

민족문학과 사회문학이 氷炭不相容이라 보고, 相互排擊하는 者 流는 소위 宗派主義의 여독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현정세에 타당한 것으로 보고 더구나 양자는 서로 이 그 합치점을 연관하여 합류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단계의 정세에 있어서 민족관념과 계급정신을 서로 背馳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과 이상에 대하여 아울러 색맹이다. 더구나 무산문학파에서 민족관념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배격코자 하는 경향은 무던히 착각적 이론에 속하는 것이다. 현정세에 있어서는 민족을 초월한 계급정신도 없고, 계급에서 유리한 민족관념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조선민족인인 동시에 무산계급인이 아니냐, 우리의 문학은 민족적인 동시에 무산계급적이어야 한다.⁵⁹⁾

양주동은 이러한 절충적인 입장에서 민족주의 문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항목화했다.

- ①봉건적, 국수적, 보수적 태도를 양기할 것 ②민족적 사실의 부대 사실이요 또 민족 대부분의 사실인 계급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 ③민족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수록 광범한 사회층의 의식을 포용할 것 ④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할 것 ⑤민족적 통일, 단결, 역량집중을 고조할 것 ⑥계급문화와 적대, 대립하지 않고 병존, 병립, 혹은 교차할 것 ⑦민족, 계급 문학이 대립될 경우 어떤 특수사항에 제회하여서는 '보다 큰 사실'을 신중히 고려할 것 ⑧계급적 이해가 동일한 이민족간의 무산계급을 제재로 할 때, 그 민족적 감정을 선동 혹은 과장하지 말 것 ⑨이상적으로 코즈머폴리터니즘을 방사하여 민족의식이 궁극의 이상이 아닐을 보일 것⁶⁰⁾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듯이 계급문학파를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민족우선의 전제 아래 계급화합론에 머물러 민족문학파가 전부터 가져

하여 염상섭의 경향을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임규찬, 앞의 책, pp.339-354)

58) 양주동, 「丁卯評論壇 總觀」, 『동아일보』1928.1.1-18일자

59) 양주동, 「文藝公論」, 『文藝公論』5월호(1929), p.44

60) 이주형, 『한국근대소설연구』(창작과 비평사, 1995), p.394에서 재인용.

왔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프로문학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염상섭은 또한 최남선의 시조 부활론에 동조하는 글을 쓰면서(61) 민족주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프로문학과의 절충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국민문학을 주장하는 일파에서도, 계급고가 있는 이상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대적 요소의 문학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요, 계급문학측으로 보더라도 민족적 전통과 심리를 가진 한에서는 민족적 요소를 토대로 한 문학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절충적 입장을 드러내었다.(62) 염상섭은 또한 앞서도 말했듯이 개인성을 사회성보다 중시하면서도 집단 의식이 문학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였다.

어대까지든지 개인의식, 개인성, 더 분명히 말하여 자기의 영혼의 솔직한 요구를 살리는 가운데는 집단성이나 투쟁욕이 표현될 수도 있고 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집단의식이나 투쟁의지가 政治道나 社會道에 있어서 第一義的이요, 문예가 第二義的임과 가타 文藝道에 있어서는 藝術義와 개성이 第一義的이요, 집단의식이나 투쟁욕이란 것이 第二義的임은 쓰한 당연한 分域이라 할 것이다.(63)

이렇듯 염상섭의 절충론 특색은 프로문학을 국민문학론에 포함시키려는 양주동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프로문학보다는 국민문학과적 입장에 가까이 서 있었다.(64)

그런데 이들 절충적 문학론의 입장은 당시 민족운동의 흐름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영민은 「계급문학과 국민문학의 이념적 갈등은 『신간회』의 결성과 함께 민족·사회운동의 단일노선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 보다 넓은 의미의 민족문학으로의 절충·통합이 요구되면서 해소되는 듯하였다.」(65)라고 하여 2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문학상에 반영된 것이 이른바

61) 염상섭, 「시조에 관하여」, 『조선일보』1926.10.6일자, 「의문이 왜 있습니까」, 『新民』(1927.3)

62) 염상섭, 「조선문학의 현재와 장래」, 『新民』(1927.1)와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일고찰」, 『조선일보』1927.1.1-15일자가 그것이다.

63) 염상섭, 「문학상의 집단의식과 개인의식」, 『문예공론』(1929.5)

64) 김영민, 「1920년대 한국문학비평 연구」,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연구』(세계, 1989), p.279의 견해 참고.

65) 권영민, 『민족문학론연구』(민음사, 1988), p.119

절충주의 문학논쟁이라고 하였고, 임규찬도 「이론바 절충파로 알려진 이들은 무엇보다 신간회의 결성이라는 당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당시의 문학적 상황에 적극 개입해 들어간다.」⁶⁶⁾라고 하여 좌우합작의 민족운동인 신간회운동과 이들의 문학론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은 문학의 관념적인 민족론을 내세우는 민족주의 우파와 현실을 도식화하려던 프로문학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통합적 논리로 당대 문단을 바라보았으나 이러한 의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양주동의 경우는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좌우익 양대세력의 합치점을 찾으려 했지만 구체적인 이론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염상섭의 경우는 개성과 그의 발현으로서의 민족성론에 기초한 문학적 신념을 폄하했지만 그가 구축한 개성과 사회성의 차이를 좁히거나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5. 맺는말

이상 일제시기 좌익문학과의 관계선상에서 대만과 한국, 양국의 민족문학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국의 민족문학론이 공히 좌익문학에 대한 대립적 입장에서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당시 민족운동과의 연관관계에서 찾아지는데, 대만의 경우 1930년대는 좌익정치운동이 문학운동으로 전환된 시기였고, 1927년 문협이 좌경화 이후 독자적인 길을 가던 우익정치운동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葉榮鐘에게서 보여지듯 우익민족운동의 정신을 문학운동에서 살리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張深切的 경우처럼 민족운동이 분열된 이후 문학운동에 한해서라도 좌우익 양대진영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이에 적극 호응하는 입장에서 비교적 절충적인 민족문학론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역시 최남선과 이광수의 국민문학론은 그들 자신의 우파적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홍하는 프로문학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으며, 양주동과 염상섭의 절충주의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

66) 임규찬, 『한국 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태학사, 1998), p.345

와 같이 신간회의 설립 등 민족운동의 연합전선형성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고 있다. 즉 양국의 민족문학론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제기된 것으로 당시 프로문학 뿐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하는 현실의 문학적 반영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문학의 비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 민족문학론은 반좌익적 성격이 강했으며 좌익문학의 세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립하여 민족의 특수성과 집단성의 공통성, 향토성을 주장했지만 민족성을 심정적, 관념적인 경향으로 파악하여 종속된 자본주의체제가 가져온 기층민중의 현실을 문학과 연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고 대부분 이론의 심각도 부족을 노출하였다.

그 외 좌익문학의 목적의식과 집단성 강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문학성의 증시, 개인성의 증시는 문학이 문학인 이상 불변하는 진리로서 올바른 비평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만의 경우 비록 문학성을 강조한 부분이 많지 않고, 한국의 경우에도 양주동처럼 형식주의, 기교주의로 기울거나 염상섭처럼 개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원만히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당시 프로문학의 편협된 면을 적절하게 비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양국의 좌익문학론은 당시 유입된 사회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흥기의 국면에 접어든 좌익문학운동을 우익적 입장에서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기되었으며, 공히 좌익문학의 세계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적, 집단적 특수성과 향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학분위의 입장에서 내용과 형식, 집단성과 개인성, 목적성과 예술성에 대한 재 사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양국의 민족문학론 대두 시기는 차이를 보이는데, 대만의 경우 1920년 근대문학의 시작인 신문학운동 초기부터 좌익사조가 들어와 민족문학론이 제기된 1930년대까지 별 전제 없이 받아들여져 좌익이론과 작품이 제약없이 창작되어졌는데 비해, 한국은 1920년대 사회주의 사조의 유입과 발전이전에 이미 상당한 근대문학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프로문학을 견제하는 민족문학론이 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민족문학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도 양국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대만에서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좌우익 연합전선 시기였고 1927년 이후 분열되었다가 1931년 표면적으로 케멸되는 과정을

겪는다. 민족문학론이 제기된 1930년대는 민족운동이 정치적인 무대를 상실하고 문학운동으로 바뀐 시기이며 초기 좌익문학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족주의 우파의 견제역할로 나온 것이 葉榮鐘의 第三文學論이고, 문학운동에서의 좌우연합 요구가 강해지던 때 나온 것이 절충적 성격을 띤 張深切의 道德文學論이다.

한국의 경우, 3·1운동이후 민중적 역량이 확인되면서 민족운동이 민족주의 좌우파로 나누어지고 우파는 개량주의노선을, 좌파는 사회주의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가 1927년을 전후하여 좌우연합전선인 신간회의 성립을 보게 된다. 민족문학론의 대두는 바로 이 시기와 맞물리는데 최남선을 위시한 국민문학론은 민족주의 좌우파의 대립 속에서 좌파의 견제역량으로 배태되었으며, 절충주의 노선은 좌우합작을 희망하는 범 민족적 기류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차이점은 근대문학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었고 좌익문학도 「카프」 결성 등 조직적으로 진행되던 한국에서 비교적 집중적인 토론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던 데 비하여 근대문학의 개시와 더불어 좌익문학을 받아들인 대만의 경우는 비교적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의견 제시 형태를 취하는 상이점을 드러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론의 제기는 양국에서 공히 문학과 사회, 개인과 집단, 내용과 형식의 관계와 해결 등 민족문학의 필수 과제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자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민족성을 제고시켜 프로문학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민족 통치에 대항하였으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된 당대 현실의 기반에서 문학의 현실참여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Abstract

An Emphasis on Provincialism and Literariness - The Anti-left-wing Nationalist Literary Viewpoint in Taiwan and Kore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seng Tien-Fu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posing of nationalist literature in Taiwan and Korea, opposing to the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argets of the research in Taiwan include the Third literature of Ye Rong-Zhong and Moral literature of Zhang Shen-Qie in the 1930s, and in Korea, include the Nationalist literature of Choi Nam-Sön, Lee Kuang-Su and the Eclecticism literature of Yang Ju-Dong, Yöm Sang-Söp in the late 1920s. The occurrence of those literary theories, was originally opposed to the prevalence of the proletarian literature in these two countries. Their contents focus mostly on criticizing the proletarian literature. Hence, this article not only reviews the stance of these anti-left-wing, but also the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posing of the content and reas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listed as follows: First, both countries persisted that the reason of the anti-left-wing stance, which leads to the launching of the Nationalist literature, correlates with the nationalist movement. That means people such as Ye Rong-Zhong, whose political stance inclines to the right wing, proposes the Third literature.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political movements fade, nationalist movement must turn to literary movements which continue pushing; Zhang Shen-Qie

proposes Moral literature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 over the course during the cooperative period of the literary movement, seeking great consolidation. The same situation, the proposing of the Nationalist literature of Korea's Choi Nam-Sŏn, involves nationalism right-wing character of the left-wing.

However, the report of Yang Ju-Dong and Yŏm Sang-Sŏp on eclecticism, at the opportune moment, corresponds to or tall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Singanhuei" which seeks for the nationalist movement incorporated the period of the battle front.

In addition, the Nationalist literature of the countries, opposing the cosmopolitanism and universalism of the anti-left-wing, asserts the specialty of nationalists and the applicability and provincialism of the group; in contrast to the collectivism of the Proletarian literature and the emphasis of individuality of the Nationalist literature, as well as to the proletarian literature focuses on the content.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ist literature, is based on literature, emphasizes on artistry and literariness, including forms and styles. However, the Nationalist literature focuses on the entire nation. Unfortunately it neglects most grassroots who fails to reflect their reality concretely due to the fact of the proletariat.

Moreover, this article also explores its relationship with the flow of local nationalist libera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literary circles before the rising of the proletarian literature that was based on the periodic difference before the rising of the nationalist literature of the two countries.